

## 국내 뉴스

### 1. “나만 안 갔나” 하늘길 승객, 2개월 연속 1000만 돌파



국내 공항을 이용한 항공 승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선 여객 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사들은 꾸준한 노선 증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공항을 이용한 항공 승객은 10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035만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하늘길 이용자가 두 달 연속 1000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항공사 수익에 직결되는 국제선 여객 수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같은 시간 국제선 여객수는 484만명으로 지난달 동기 465만여명보다 4.1% 늘었다.

국내선 승객 규모는 비슷했다. 동 시간 5월 국내선 여객수는 528만여명이다. 직전 달 533만명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항공사들은 꾸준한 노선 증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름을 맞아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 휴양지 노선을 넓힐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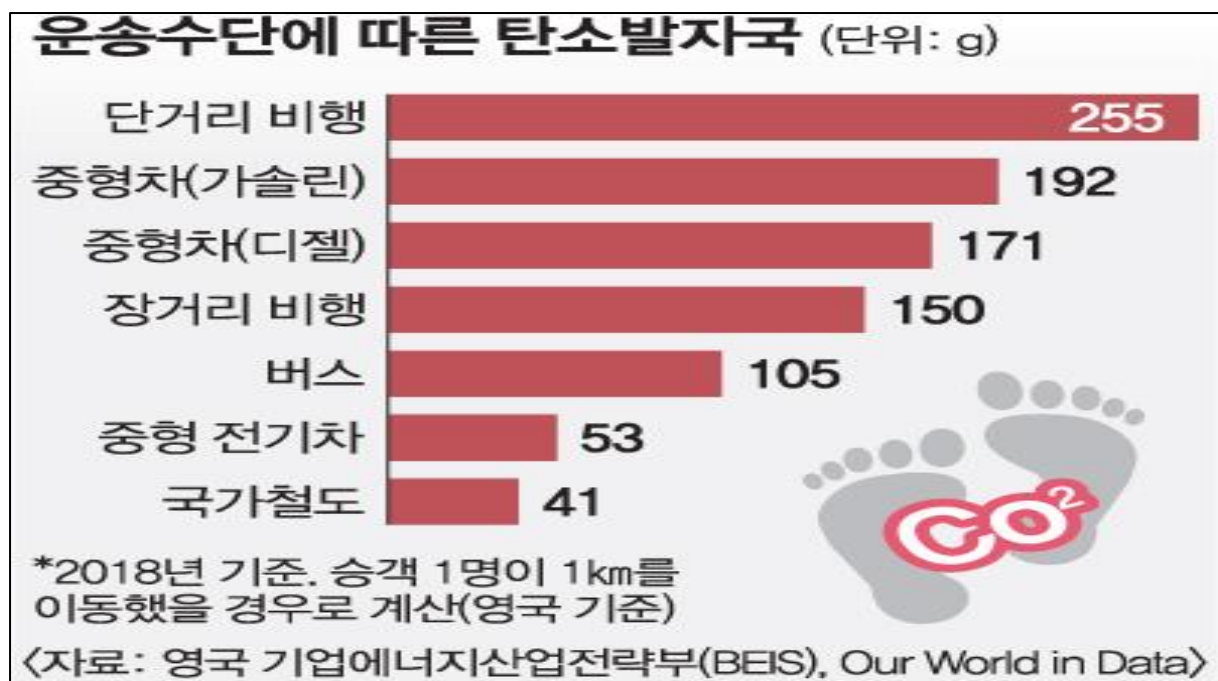
실제로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인천~프라하·이스탄불·울란바토르 노선을 각각 1~2회 증편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세부·클락 등 휴양지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

편을 늘린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인천 노선에 집중한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2일부터 인천~오이타 노선을 주 3회로 신규 취항하고 진에어는 같은달 29일 인천~기타큐슈 노선을 증편해 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오사카, 나트랑 노선을 추가한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2. 항공업계, '탄소배출 최다' 오명 벗기 안간힘



항공기가 전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5%에 불과하지만, 이동수단 중 탄소 배출량은 가장 많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 를 이동할 때 탄소 배출량은 버스 105g, 중형차(디젤) 171g, 중형차(가솔린) 비행기(단거리) 255g 으로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여기에 높은 고도에서 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장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은 SAF 다. SAF 는 기존의 석유 항공유를 대체해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바이오 매스 등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다.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업계 2050 년 탄소중립 달성 수단별 비중은 SAF 65%, 탄소 상쇄·포집 19%, 항공기 신기술(전기, 수소) 13%, 인프라·운항 개선 3% 등이다.

대한항공은 SAF 활성화를 위해 현대오일뱅크와 SAF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 협력을 위한 MOU 를 체결했다. 또 신규 바이오 연료의 국내 도입과 사용 촉진을 위해 정부 주관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적 항공사 최초로 정기 노선인 파리-인천 구간에 SAF 를 사용해 운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효율 항공기 도입으로 연료 효율 개선을 하고 있다. 최근 A220-300, A321-NEO, B787-9, B737-8 은 동급 기종 대비 좌석당 탄소 배출량을 20~2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했다. 특히 A220-300 과 B787-9 는 회사의 주력 기종으로써 각각 국내 단거리 노선과 해외 장거리 노선에 적극 투입했다. 기령 20 년을 초과한 항공기들도 순차적으로 송출해 보유 항공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운항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전문 솔루션 프로그램을 검토 후 대한항공의 제반 운영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연료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신기재 도입, 연료절감 활동 등으로 친환경 방침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동급 항공기 B777 보다 연료 효율이 25%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25% 적은 차세대 항공기 A350 을 도입했다.

연료 절감을 위해 이륙 전부터 운항 과정, 착륙까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도한 연료 소모 기종·노선에 대해 수시로 원인을 분석해 경제 항로, 근거리 교체 항공 등을 발굴하는 등 비행 계획을 효율화한다.

또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경우 지상전원장비(GPS, GPU)를 사용해 보조동력장치(APU) 사용 시간을 최소화한다. 무게중심 후방관리를 통해 최적화된 중량관리도 이룸으로써 연료절감과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있다.

항공업계의 탄소 감축은 기술력이나 비중 등에서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당장 주요국 환경 규제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상태다.

유럽연합(EU)은 2025 년부터 기존 항공유에 SAF 를 2% 이상 섞도록 의무화했다. 2030 년 6%, 2035 년 20%, 2050 년 63% 등 점차 확대된다.

하지만 급격하게 SAF 비중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생산시설 한계로 공급 자체가 부족해 전 세계 항공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수준에 불과하다.

SAF 등 바이오 항공유 가격이 기존 항공유보다 3~5 배가량 비싸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여객 부담으로 이어진다. IATA 는 친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SAF 사용도 확대되면 향후 10 년에서 15 년간 국제 항공 요금의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국내 항공업계는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도입 기반도 뒤처져 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기업은 이미 SAF 를 생산하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연내 SAF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증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는 IATA 총회에서 결의한 '2050 년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도입 노력중이며, 국내 항공업계도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라며 "특히 항공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 도입 위해 항공 제작사, 정유업계 등과 협력을 지속 펼쳐나가고 있으나 생산, 급유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며 국가적 지원이나 혜택이 준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3. 대한항공, 승무원 복귀에 신규 채용도…23일까지 접수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최근 모든 객실 승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킨 대한항공이 승무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 객실 승무원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150명 수준이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1차·2차 면접(영어 인터뷰 포함), 3차 면접 및 인성검사, 건강검진, 수영테스트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객실 승무원 휴업을 지난달 31일부로 종료했다. 이달부터는 모든 승무원이 근무에 투입돼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여객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100여명을 선발했고, 두달 뒤에는 일반직 신입·경력사원 공채를 코로나 이후 처음 진행했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 4. 항공업계, '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리 강화'에 "철저히 관리 중"



항공업계는 10일 승무원이 기준치를 넘는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되는 데 대해 "이미 우주방사선 노출량을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대응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1년 전부터 관련 법령의 시행이 예고된 만큼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부터 각 항공사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관련 건강진단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의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이전부터 일찌감치 연간 최대 6mSv 기준을 적용해 승무원들의 비행 스케줄 등을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매달 승무원 개인별 누적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사내 정보 사이트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상담 등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련 교육 등 안전관리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 역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비행 스케줄을 마련하고,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피폭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우주방사선 등 저선량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을 더 관찰한다는 목적으로 승무원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입사한 승무원을 상대로 관련 건강진단을 추가 실시하는 등 법령 시행 전부터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존 승무원들에 대한 연내 건강진단,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준비하고 있다.

진에어 역시 승무원 건강검진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들은 '관련 없다'는 반응이다. 비행거리가 짧아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이 적다거나,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북극 항로(미국·캐나다→한국)를 운항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 5. 이스타항공, 8월부터 청주~제주 노선 운항 시작

## 이스타항공 청주-제주 노선 운항스케줄

### 청주 → 제주

편명	출발	운항요일	운항기간
ZE701	07시 45분	매일	08/01~10/28
ZE703	17시 00분	매일	09/01~10/28
ZE705	20시 40분	매일	09/01~10/28

### 제주 → 청주

편명	출발	운항요일	운항기간
ZE702	07시 55분	매일	09/01~10/28
ZE704	18시 45분	매일	09/01~10/28
ZE706	21시 25분	매일	08/01~10/28

\*2023/08/01~ 2023/10/28 기준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8월 1일부터 청주~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

이스타항공은 4, 5호기 도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 청주~제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 6월 중 도입되는 4호기는 7월 김포~제주 노선 증편에 투입하고, 7월 도입 예정인 5호기를 8월 청주~제주 노선 신규 취항과 김포~제주 노선 증편에 투입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의 8월 청주~제주 노선의 자세한 운항 일정은 오전 7시 45분에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ZE701편과 오후 9시 25분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ZE706편으로 하루 1 왕복 운항하고, 9월부터 오후와 저녁 시간대를 추가해 하루 3왕복, 주 21회 운항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계 스케줄 기간인 10월 28일까지의 좌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청주발 제주 노선의 신규 취항과 김포~제주 노선의 증편 기간에 7월, 8월 성수기 기간이 포함된 만큼 제주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 6. 에어프레미아 “내년 흑자전환 기대..2027년 매출 1조 달성할 것”



에어프레미아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글로벌 국제선 정기 취항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매출 등의 목표를 발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과 대형항공사(FSC)의 장점인 넓은 좌석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전략에서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에 출범한 신생 항공사다.

단거리에 특화된 LCC와 달리 1만5500km 가량을 비행할 수 있는 중대형기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운용하며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첫 국제선 정기 취항에 나선 이후 같은 해 10월 LA(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올해 5월 뉴욕에도 취항했다. 오는 23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유럽 노선 진출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에어프레미아는 국제선을 운항한 지 1년에 불과하지만, 대형항공사에 비해 평균 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운임을 제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항공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비싼 비즈니스석을 없애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과 이코노미석 등 2가지

로만 좌석을 편성하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코노미석보다 15~30%가량 요금 낮추는 전략을 택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중이다.

유 대표는 올해까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지만, 내년부터는 여객기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흑자전환을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여객기 3대 운영하면서 가동률이 70%정도였다”며 “5월까지의 적자를 유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월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상반기 보잉 787-9 기종 4대 추가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기단을 총 15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대표는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대 이상의 대형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미주·유럽 주요 노선 발굴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7. 티웨이항공, 인천~비슈케크 신규 취항



티웨이항공은 코로나 기간에도 총 22편의 비슈케크 노선 전세편을 꾸준히 운항해 오며 중앙아시아 노선 진출을 준비해왔다. 전세편을 통해 3600여명의 승객과 75톤가량의 화물을 수송했으며, 특히 코로나 기간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현지 교민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주 1회 운항하는 인천~비슈케크 노선은 일요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을 출발해 비슈케크 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 30분경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비행시간은 7시간 가량 소요되며, 한국과의 시차는 3시간 느리다.

지난 11일 첫 탑승편의 경우 만석을 기록하고, 이후 7월까지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비슈케크 노선은 트래킹 여행 및 현지 교민, 외국인 탑승고객들이 예약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비슈케크를 수도로 둔 키르기스스탄은 고산이 많고 사막이 없는 천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린다.

키르기스스탄은 60일간 무비자 관광이 가능한 곳으로, 일 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로 유명한 텐산 산맥과 청록빛의 광활한 호수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식쿨,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휴양했다는 온천 시설 등 대자연의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최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한-키르기스스탄간 교류 확대에 많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해외 뉴스

### 8. 미국, 팬데믹 이래 가장 높은 항공교통량 기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메모리얼데이(5월 29일) 연휴를 앞둔 5월 26일, 미국의 항공교통량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 5월 26일에는 약 2만3천편의 항공편이 예정되었으며, 약 4천2백만 명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데이터 업체 시리움(Cirium)에 따르면 26일 운항편수가 많은 항공사 순위로는 1위 아메리칸항공 5,231편(약 626,000석), 2위 델타항공 4,583편(약 587,000석), 3위 사우스웨스트항공 4,161편(약 623,000석) 순서이다.

- 유나이티드항공은 운항편수 3,958편으로 4위를 기록하였지만, 좌석 수는 약 500,000석으로 1~3순위를 차지한 항공사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공항은 애틀랜타국제공항(1,089편)으로, 유일하게 항공편이 1천회 이상 운항한 공항으로 나타났다.

-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의 허브공항인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ORD)은 968편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 3위로 봄비는 공항은 댈러스 포트워스국제공항(DFW)으로, 755편이운항이 예정되었으며 그 중 아메리칸항공이 82.4%를 운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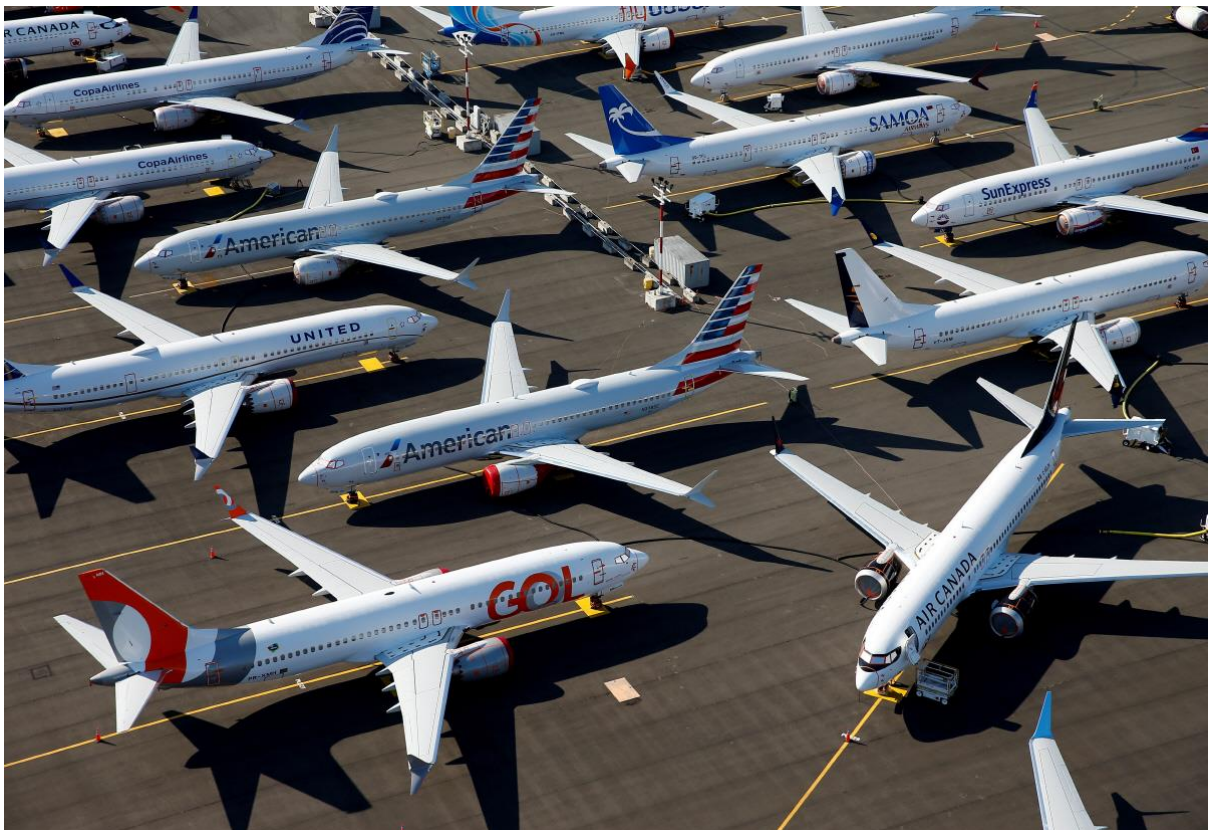
- 4위는 유나이티드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주요 허브공항인 덴버국제공항, 5위는 유나이티드항공의 허브공항인 로스앤젤레스공항(LAX)이 차지하였다.

시리움은 오는 6월 5일에 미국의 일일 좌석공급력이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0만 석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 올 여름 항공교통량은 7월 21일에 국내선 23,481편(308만석)이 운항하면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9. “하늘길 열리니 난리”...전세계 기내 난동 47% 늘었다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두 배 급증

승무원 지시 불이행·언어 폭력·만취 등 많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국가 간 왕래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 난동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4~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79회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항공편 1000편당 발생한 기내 난동은 1.76건(568편당 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2건(835편당 1건)에서 빈도가 약 47% 증가한 수치다.

기내 난동 사건의 연도별 전체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IATA가 지난 3월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를 인용해 발표한 세계 항공편 수는 2021년 2570만편, 지난해 3220만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2021년 약 3만800건이었던 기내 난동 사건은 지난해 약 5만66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산하면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최근에도 대만 여객기에서 일본 승객이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승객이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비상구를 여는 사건으로 큰 문제가 됐다. 또 미국에서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영아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승객이 쫓겨났다.

지난해 자주 발생한 기내 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흡연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을 포함한 '승무원 지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기내 만취'가 그 뒤를 이었다.

지시 불이행은 2021년 항공편 1000편당 0.224건에서 작년 0.307건으로 빈도가 37% 늘었다. 같은 기간 언어폭력과 기내 만취 빈도는 각각 61%, 58% 증가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 10.해외여행 '큰 손' 더이상 중국인 아냐..'인구 1위' 넘보는 이 나라



중국을 추월하고 세계 인구 1위를 목전에 둔 인도가 해외 관광업에서도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인도상공회의소(FICCI)와 컨설팅업체 '난지아 앤 더슨'은 2024년 한 해 인도인들이 해외여행에 지출할 금액이 420억달러(약 53조4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229억달러)에 비해 83.4%, 팬데믹으로 여행이 위축된 2021년(126억달러)에 비해선 233.3% 폭증한 규모다.

인도의 해외여행 증가세는 인프라 개선과 항공업계의 확장 덕분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새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현대화에 9800억루피(약 15조2000억원)를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아시아 최대의 노이 다국제공항 프로젝트 예산도 포함한 금액이다.

인도에선 국내 지역 간 연결 계획에 따라 2017년 이래로 최소 73곳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작년 5950만명의 승객이 다녀간 뉴델리의 인디라간디국제공항은 올해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10대 공항'에 들었다.

민간 항공사들의 투자 확대도 해외관광업 증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인도 타타그룹의 인수로 지난해 민영화된 에어인디아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아시아인디아를 합병하는 등 몸집을 키웠고, 올해 2월엔 새 비행기를 500대 가량 사들이며 단일 항공사로선 사상 최대 규모 구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기착지에 신규 노선 역시 여럿 추가했다.

LLC인 인디고도 이달 초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 걸쳐 주당 174회의 항공편을 추가하고 목적지 6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도 민간항공부는 증가하는 여행 수요 충족을 위해 국내·국제선 항공기 대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아고다에 따르면 인도인들이 찾는 여행지는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지역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은 아직까지 인도인들에게 낯선 여행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